

두 해 전 찬성은 아버지를 여의고 여름방학을 맞았다. 찬성의 아버지는 갯길에서 사고를 당했다. 찬성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트럭이 전복돼 아버지와 함께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동안 집에 낯선 사람이 오갔다. 찬성은 마룻바닥에 누워 플라스틱 경찰차를 만지는 척하며 어른들 대화를 엿들었다. 옆으로 고개를 틀 때마다 끼익- 끼익- 소리를 내는 선풍기가 '약관'이나 '고의' '증거' 같은 말을 나른하게 실어왔다. 집밖에선 매미가 울었다. 방문객 중 한 사람이 찬성의 아버지가 '우연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했다. 정확히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나 찬성은 그렇게 이해했다. 보험금은 한푼도 나오지 않았다.

길고 무더운 여름이었다.

찬성은 K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 살았다. 이웃이라 해 봐야 산자락에 띄엄띄엄 박힌 농가 몇 채가 전부인 동네였다. 찬성의 할머니는 휴게소 분식 코너에서 일했다. 급식이 끊기는 방학마다 찬성은 휴게소에 들러 자주 끼니를 때웠다. 초등학교 걸음으로 사십 분 걸려 도착한 곳에서 오 분 만에 그릇을 비우고 다시 집으로 걸어갔다. 할머니는 찬성에게 식대 겸 용돈으로 매일 이천 원씩 줬다. 날이 갠거나 곧장 집에 가기 싫을 때 찬성은 등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관광객 흥내를 냈다. 그러면 자기도 그곳에 들른 사람, 잠깐 쉬는 사람, 이제 막 먼 데서 돌아왔거나 떠날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땐 거기 몇 시간씩 앉아 있곤 했다. 날은 후텁지근하고, 방학은 길고, 그해 여름은 웬지 모든 게 지겨웠으니까.

휴게소에서 월급을 받기 전, 찬성의 할머니는 줄음 컴퓨터에서 몇 년간 커피를 팔았다. 갓길을 확장한 형태의 주차 공간에 이동식 화장실과 녹슨 운동기구가 놓인 곳이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도로에 물안개가 일고, 황사가 눈을 가려도 할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손님을 기다렸다. 그 시절 찬성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

을 몇 가지 깨달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인내가 무언가를 꼭 보상해주진 않는다는 점이였다. 찬성은 그곳에서 새소리와 바람 소리, 자동차 배기가스와 어른들의 하품을 먹고 자랐다. 환한 대낮, 차 안에서 일제히 잠든 이들은 모두 피로에 학살당한 것처럼 보였다. 혹은 줄음 컴퓨터 자체가 자동차 묘지 같았다. 찬성이 때를 쓰거나 큰 소리로 울면 할머니는 입술에 손을 대며 무섭게 다그쳤다. 당시 찬성이 맡은 가장 중요한 일은 잘 끄는 것도 노는 것도 아닌, 어른들의 잠을 깨우지 않는 거였다.

저물녘, 지평선 너머 끝없이 펼쳐진 아스팔트 위로 붉은빛이 번지면 할머니는 스스로 하루 노고를 치하하듯 담배를 꺼내 물었다. 능숙한 솜으로 고개 숙여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했다.

— 할머니, 용서가 뭐야?

아이스박스 캐리어 앞에서 흉장난을 치던 찬성이 물었다.

— 없던 일로 하자는 거야?

할머니는 대답 대신 불우풀이 깊게 패게 담배를 빨았다. 담배 연기가 질 나쁜 소문처럼 순식간에 폐 속을 장악해나가는 느낌을 만끽했다. 그 소문의 최초 유포자인 양 약간의 죄책감과 즐거움을 갖고서였다.

—아님, 잊어달라는 거야?

찬성이 채근하자 할머니는 강마른 손가락으로 담뱃재를 바닥에 툭툭 털며 무성의하게 대꾸했다.

—그냥 한번 봐달라는 거야.

저녁마다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연결된 수도 앞에서 몸을 씻었다. 손에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 목덜미와 귓바퀴, 콧구멍 속 매연을 닦아냈다. 할머니는 기미 낀 얼굴에 로션을 짝어 바른 뒤 안방에 두꺼운 요 두 채를 폈다. 그러곤 이불 위에 앉아 그날 번 돈을 세며, 아직 초등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은 찬성에게 물었다.

—너, 대학에는 안 갈 거지? 그렇지?

찬성이 이불 위에 누워 티브이 만화 주제를 흥얼거리다 답했다.

—그게 뭔데?

할머니는 찬성을 지그시 바라보다 “그러게 말이다” 하고 탄성을 피웠다.

시골 밤은 길고 지루했다. 할머니는 전기세를 아낀다며 초저녁부터 집의 모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찬성은 할머니가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까지 천장을 바라봤다. 그러다 어느 땐 하도 심심해 어둠 속에서 혼자 작은 손을 고물거

려 무언가 만들어냈다. 엄지를 쫑긋 세운 뒤 나머지 손가락을 두 개씩 붙여 제 몸에서 개 한 마리를 불러냈다. 도베르만이나 셰퍼드를 닮은 경비견이었다.

‘이럴 때 나도 스마트폰 있으면 좋는데.’

찬성은 아버지가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 천장에 빛을 쏜 걸 기억했다. 벽에 비친 개 그림자는 그 빛으로 만든 거였다. 찬성이 두 쌍의 손가락을 벌렸다 오므리며 개 짖는 시늉을 했다. 빛이 없어 자기 그림자를 갖지 못한 작은 개가 찬성의 손목 아래서 자꾸 소리 없이 짖어댔다.

하루 또 하루가 갔다. 담장 밖 개구리 울음은 매미 소리로, 다시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었다. 할머니는 이따금 찬성 뺨에 불을 비비며 ‘우리 강아지’라 했다. 평소 스킨십에 인색한 할머니의 포옹이 어색하고 반가워 찬성은 애매하게 웃었다.

—우리 강아지, 얼른 자라라. 어서 커서 할머니한테 효도해야지?

잠이 오지 않을 때 찬성은 어둠 속 빈 벽을 바라보며 자주 잡생각에 빠졌다. 그럴 땐 종종 할머니가 일러준 ‘용서’라는 말이 떠올랐다. 없던 일이 될 수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런 건 모두 어디로 가나. 하나님은 어찌서 할머니를 자꾸

봐주나. 둘이 친한가 하고. 한 해 또 한 해가 갔다. 할머니는 줄음  
셔터에서 휴게소로 일터를 옮겼고, 찬성 또한 훌쩍 자라 아무데서  
나 울지 않는 소년이 됐다. 그렇지만, 그렇다 한들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 때 울지 않을 도리가 없는 열 살이 됐다.

\*

찬성이 그 개와 처음 만난 건 아버지를 여의고 한 달쯤 지나서  
였다. 찬성은 할머니가 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개를 봤  
다. 개는 남자 화장실 옆 화단의 철제 울타리에 묶여 있었다. 여러  
피가 섞여 정확히 어떤 종이라 말하기 어려운 작고 흰 개였다. 개  
는 네발로 푹푹이 선 채 도로 끝 한 점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마치  
그러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거나 한 듯. 철제 울타  
리와 개 사이의 목줄이 끊어질 듯 팽팽했다. 찬성은 개를 슬쩍 한  
번 쳐다본 뒤 그 앞을 무심히 지나쳤다. 그리고 할머니가 일하는  
분식 코너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같은 날 저녁, 찬성은 휴게소 안 패스트푸드가게에서 여름방학  
특가 상품으로 나온 주니어세트를 먹었다. 하루에 두 번이나 휴게  
소에 오는 일은 드문데, 찬성에게 갑자기 약 심부름을 시킨 할머  
니가 미안해하며 사준 거였다. 찬성은 햄버거를 다 먹은 뒤 콜라

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곤 등나무 벤치로 가  
다 낮에 본 흰 개가 여전히 화단에 묶여 있는 걸 봤다. 개는 만나  
질 사이 꽤 풀이 죽어 있었다. 기품 어린 자세로 먼 곳을 보던 모  
습은 간데없고 시무룩한 얼굴로 귀와 꼬리를 늘어뜨린 채 엎드려  
있었다. 검은 눈동자 안에는 주인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보다 '내  
가 뭘 잘못된 걸까' 하는 질문과 자책이 담겨 있었다. 전에도 찬성  
은 그런 개를 본 적 있었다. 한밤중 갓길에 버려진 뒤 앞차를 향해  
죽어라 달려가던 개들이었다.

'적어도 차에 치여 죽지는 말라고 여기 묶어놔나보다.'

찬성은 휴게소에 남겨진 개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운  
이 나쁠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안타깝긴 하지만 찬성은 그 개도  
어른들의 손에 맡길 생각이었다.

'그전에.'

찬성이 혀를 내민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흰 개를 내려다봤다.

'물이라도 좀 주자.'

찬성이 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컵에 남은 콜라를 끝까지  
쪽 빨아먹었다. 그러곤 플라스틱 뚜껑과 빨대를 휴지통에 버린 뒤  
컵에 손을 집어넣었다.

—……?

흰 개가 물끄러미 찬성을 올려다봤다. 살짝 경계하는 눈치나 눈  
에 힘이 없었다. 찬성이 용기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흰 개가

찬성 주위를 빙그르르 돌며 찬성의 몸냄새를 맡았다. 그러곤 뭔가 결심한 듯 찬성의 손바닥에 코를 대고 쿵쿵대다 혀를 내밀어 얼음을 핥았다. 순간 물경하고, 차갑고, 뜨뜻미지근하고, 간지럽고, 부드러운 뭔가가 찬성을 훑고 지나갔다. 난생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찬성이 두 눈을 깜빡였다. 이윽고 개가 얼음을 낚름 입에 넣더니 와삭와삭 씹었다. 와사삭- 와삭- 청량하게 얼음 부서지는 소리가 찬성 귀까지 다 들렸다. 찬성이 자기 손바닥을 가만 내려다봤다. 얼음은 사라지고 손에 얹은 물자국만 남아 있었다. 동시에 찬성의 내면에도 묘한 자국이 생겼는데 찬성은 그게 뭔지 몰랐다. 개가 희고 긴 속눈썹을 치켜올려 찬성을 바라봤다. 찬성이 서둘러 컵에 다시 손을 넣었다. 두 해 전 일이다.

\*

—에반.

찬성은 그 개를 그렇게 불렀다.

—왜 그래, 에반. 어디 아파?

사람 나이로 치면 이미 칠순을 넘긴 노견에게 찬성은 형 노릇을 했다. 찬성은 어쩐지 에반이 자기보다 오래 산 동생, 살면서 이미 많은 걸 경험한 동생처럼 느껴졌다. 찬성이 처음 “에반” 하고 불렀을 때 에반은 딴 곳을 봤다. 당연했다. 그건 자기 이름이 아니었

으니까. 찬성은 서운해 앓고 에반을 어루만졌다. 에반에게 자기가 모르는 삶과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러 애썼다. 그래도 어느 땐 에반의 과거가 너무 궁금했다. 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을까? 주인은 좋은 사람이었을까? 살면서 어디까지 가봤을까? 나보단 멀리 가봤겠지? 멋진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과 해변도 막 달리고 그랬을까? 그때를 기억할까? 그걸 안다는 건 좋은 걸까?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고 싶을까?

할머니는 에반을 보자마자 성가셔했다. 개 한 마리 키우는 건 사람 한 명 기르는 일과 같은 공이 든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하긴 사람을 키워봤어야 알지.

할머니가 살짝 혐오 어린 눈으로 에반을 바라봤다.

—게다가 엄청 늙었잖니?

—애가 늙었어?

—그래, 저 이빨 봐라. 사람이건 짐승이건 털 빠지고 이 나가면 끝난 거야. 넌 그런 것도 모르면서 개를 키우겠다 하니?

찬성이 ‘그런가?’ 하는 표정으로 에반 등을 쓰다듬었다. 짧고 뾰뻗한 게 정말 털에 윤기가 하나도 없었다.

—두말할 거 없고, 내일 도로 갖다놔.

찬성의 얼굴에 실망하는 빛이 스쳤다.

—안 그러면 안 돼?

할머니는 찬성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방바닥에 쌓인 개털을 유리 테이프로 찍어냈다.

—집에 개가 있으면 도둑이 안 들 거야, 할머니.

—시끄러. 내가 내 손자 밥도 잘 못 챙겨주는데. 이 나이에 개 수발을…… 어휴, 똥오줌은 또 어찌고.

보드라운 뺨과 맑은 침을 가진 찬성과 달리 할머니는 늙는 게 뭔지 알고 있었다. 늙는다는 건 육체가 점점 액체화되는 걸 뜻했다. 탄력을 잃고 물경해진 몸 밖으로 땀과 고름, 침과 눈물, 피가 연신 새어나오는 걸 의미했다. 할머니는 집에 늙은 개를 들여 그 과정을 나날이 실감하고 싶지 않았다.

—밥은 그냥 우리 먹고 남은 거 주면 되잖아, 응?

할머니가 방바닥에 유리 테이프를 험하게 찍으며 “이 시부랄 놈의 개털, 끝이 없네!” 구시렁거렸다. 할머니가 꿈쩍 않자 다급해진 찬성은 결국 어떤 말을 내뱉고 말았는데, 그 말을 하고 본인도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에반을…… 자기가 ‘책임’지겠다 한 거였다. 태어나 처음 해본 말이었다.

그즈음 찬성은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할머니가 찬성에게 ‘이제 너도 다 컸으니 혼자 자라’며 아버지가 쓰던 방을 내어주고부터였다. 찬성은 매번 비슷한 꿈을 꿔다. 소형 냉장 트럭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꿈이었다. 트럭 안에는 털 뿜힌 식용 생닭이 가득 실려 있

었다. 트럭은 캄캄한 도로를 질주하다 중앙선 위 찬성을 발견하고 급커브를 했다. 그러곤 곧 중심을 잃고 갓길 아래 낭떠러지로 고꾸라졌다. 질벽 아래서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길의 치솟았다. 찬성은 갓길 주변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저기, 아직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주위에 모여든 구경꾼들은 ‘어디서 자꾸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했다. 찬성이 어른들을 향해 ‘도와달라’ 소리쳤다. 그러면 어디선가 할머니가 나타나 입술에 손을 대며 “췌” 소리를 냈다. 다정한 목소리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아가” 하고 찬성을 다독였다.

—네가 울면

—……

—손님들이 깨잖니.

에반을 집에 들인 날 찬성은 오랜만에 어떤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잤다. 찬성은 에반이 자길 지켜줬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에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도 에반을 꼭 보호해줘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뒤 찬성과 에반은 늘 같이 잤다. 찬성은 누군가와 꼭 껴안고 자는 기분이 어떤 건지 처음 알았다. 에반의 따뜻하고 작은 몸통이 들숨 날숨을 따라 순하게 오르내리는 것만 봐도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다. 찬성은 에반의 말랑말랑한 발바닥을 조물락거리며 자주 혼잣말을 했다.

—있잖아, 에반. 이것 봐라. 많이 모았지? 삼만원도 넘어. 어디에 쓸 거냐고? 으응, 나중에 커서 언젠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그때 나도 휴게소에 들러 커피나 한잔하려고.

에반은 자기 다리에 턱을 괴고 누워 눈꺼풀을 천천히 여닫다 먼저 잠들었다. 그래도 찬성의 수다는 밤새 이어졌다.

—너, 골육종이 뭔지 아니? 무슨 선인장 이름 같지? 그런 게 있대. 우리 아빠가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나도 몰랐을 거야.

하루 또 하루가 갔다. 인간 시계로 이 년, 개들 시력時歷으로 십년이 흘렀다. 찬성과 에반은 어느새 서로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됐다. 비록 움직임이 굼뜨고 귀가 어두웠지만 에반은 여느 개처럼 공놀이와 산책을 좋아했다. 찬성이 보푸라기 인 테니스공을 멀리 던지면 에반은 찬성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반드시 공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 무언가 제자리에 도로 갖고 오는 건 에반이 잘하는 일 중 하나였다. 찬성은 때로 에반이 자기에게 물어다주는 게 공이 아닌 다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공인 동시에 공이 아닌 그 무언가가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에반이 요즘 좀 이상했다.

\*

할머니는 밤 열시 넘어 집에 들어왔다.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서였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

찬성이 봉지 안을 들여다봤다. 은박지 사이로 설탕 입힌 통감자가 보였다. 찬성이 퇴근한 할머니 뒤를 졸졸 쫓았다.

—할머니, 에반이 좀 이상해.

—지금 안 먹을 거면 냉장고에 넣어두든가.

할머니가 평소 휴대품을 넣고 다니는 손가방을 안방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할머니, 에반이 밥을 안 먹어.

—늑어서 그래, 늑어서.

—있지, 내가 공을 던져도 움직이지 않아. 걷다 자꾸 주저앉고.

—늑어서 그렇다니까.

할머니는 모든 게 성가신 듯 팔을 휘저었다. 그러곤 끄읏 소리를 내며 바닥에 이부자리를 폈다.

—저거 봐, 저렇게 자기 다리를 자꾸 핏아. 하루종일 저래. 아까는 내가 다리를 만졌더니 갑자기 나를 물려고 했어.

할머니가 요 위에 누우려다 말고 상체를 들어 찬성을 봤다.

—아니, 진짜로 문 건 아니고 무는 시늉만 했어.

할머니가 눈을 감은 채 이마에 팔을 얹었다.

— 할머니, 에반 데리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자. 사방에 불 켜두지 말고.

할머니의 반팔 소매에 얹은 김칫국물이 묻어 있었다. 찬성이 할머니 옆에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주춤거렸다.

— 할머니, 에반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 무슨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가. 사람도 못 가는걸. 그러니까 내가 개새끼 도로 갖다놓으라 했어 안 했어? 할머니 화병 나기 전에 얼른 가서 자. 개장수한테 백구 팔아버리기 전에. 얼른!

— 백구 아니야!

찬성이 전에 없이 큰 소리를 냈다.

— 뭐?

그러곤 이내 말끝을 흐리며 소심하게 답했다.

— 에반이야.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찬성에게 얼른 나가라고 손짓했다. 찬성도 뭐라 더 말 못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다. 찬성은 어두운 방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러곤 한참 뒤 플라스틱 경찰차 속에 숨겨둔 삼만원을 꺼내 지갑에 넣었다.

\*

— 어디가 불편해서 왔나?

동물병원 의사가 물었다.

— 에반이 아픈 것 같아서요.

— 이 녀석 이름이 에반이니?

— 네, <터닝메카드>에 나오는 메카니멀 이름이에요.

— 그래?

의사가 직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지방 신도시 아파트 상권에선 무엇보다 평판과 소문이 중요했다.

—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에반은 원래 터닝카인데 메카드를 향해 슈팅하면 메카니멀로 변해요.

의사는 찬성의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지만 차트를 보며 노련하게 화제를 돌렸다.

— 그리고 너는…… 노찬성이고?

— 네? 네……

찬성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성과 이름이 같이 불릴 때 좋은 일이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교무실에서도 그렇고, 아버지가 입원한 종합병원에서도 그랬다.

— 그래서 결국 찬성한다는 거야, 반대한다는 거야?

찬성은 그런 얘기는 너무 자주 들은데다 이제 정말 식상해 대답



하기 귀찮다는 듯 어깨를 들썩였다.

—선생님 농담이 재미없다는 의견에는 찬성이예요.

의사가 다시 마른 웃음을 지었다.

—음…… 그런데 전주가 노찬성으로 되어 있네? 너 혼자 왔니? 부모님은?

에반은 긴장한 티가 역력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선묵한 기운이 에반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의사는 에반의 다리를 보자마자 살짝 놀라며 “어이쿠, 많이 아팠겠네?”라고 했다. 이 정도면 다른 곳까지 종양이 퍼졌을 확률이 높다고.

—종양이요?

—그래, 암.

—암이요? 개도 암에 걸려요?

—그럼.

찬성은 암이 뭔지 알고 있었다. 암과 관련된 냄새랄까 비명, 그리고 진이 빠진 얼굴을.

—자세한 건 검사 결과를 봐야 알 테지만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야.

—검사요?

—응. 피도 뽑고 사진도 찍고.

—그게…… 다 하면 얼마데요?

—뭐 검사하기 나름인데. 제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야. 내일 부모님 모시고 다시 올래?

찬성이 바지 주머니 속 지갑을 표 안 나게 만지작거렸다.

—그럼 선생님 마음대로 어떤 검사는 하고 어느 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그럼 자…… 삼만원, 아니 이만오천원어치만 검사해주세요.

집으로 가는 길, 찬성의 얼굴이 어두웠다. 버스 창문 밖으로 8월의 무자비한 초록이 태연하게 일렁이는 게 보였다. 햇빛도 바람도 그대로인데 갑자기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다. 몇십 분 사이에 같은 풍경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아빠도 그랬을까?’

찬성이 고개 숙여 에반을 바라봤다. 에반은 찬성의 무릎에 앉아 미세한 버스 진동을 느끼며 꾸벅 졸고 있었다. 찬성은 의사에게 들은 얘기를 하나하나 되짚었다. ‘수술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게 무슨 뜻인지 곰곰 생각했다. 이럴 땐 자신이 무얼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찬성이 문득 차고 축축한 기운을 느끼고 아래를 살폈다. 자신의 베이지색 반바지에 테니스공만한 고동색 얼룩이 보였다. 얼룩은 불완전한 모양의 원을 그리며 점점 크게 번졌다.

—왜 그래, 예반. 너 안 그랬잖아.

찬성이 예반 귀에 속삭였다. 예반을 나무라기보다 주위에 해명하는 말이었다. 여름이라 버스 안에 비릿한 지린내가 금방 퍼졌다. 조금만 참을까 하다 찬성은 목적지를 두 정거장이나 남겨두고 버스에서 내렸다. 찬성이 논둑길에 예반을 내려놓고 다정하게 말했다.

—예반, 조금만 걸어봐. 응?

예반은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꿈쩍하지 않았다. 찬성은 할 수 없이 예반을 가슴에 안고 어스름 땅거미 진 논둑길을 걸었다. 삼복 더위에 개를 안고 걷다보니 몇 분 만에 티셔츠가 흠뻑 젖었다.

—다 왔어, 조금만 참아.

병원에서 예반의 청력이 약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평소보다 목청을 돋웠다. 여기저기 머리를 잘 부딪친다니 시력도 분명 나빠졌을 거라 했다. 문득 안쓰러운 마음이 일어 찬성이 예반의 정수리를 가만 쓰다듬었다. 예반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다. 반대로 눈꼬리는 부드럽게 처져 사람이 웃는 것처럼 보였다. 찬성이 고개 들어 남은 거리를 살폈다. 미지근한 눈물 위로 하루살이 떼가 둥글게 뭉쳐 비행했다. 마치 허공에 시간의 물보라가 이는 것 같았다. 곧 예반 밥 먹일 시간이라 찬성이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정 넘어 집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마루에

올라서자마자 호주머니에서 랩으로 찐 버터구이오징어를 꺼내 찬성에게 내밀었다.

—백구 주지 말고 너만 먹어. 주려거든 머리만 떼어 주든가.

—할머니 술 마셨어?

찬성은 할머니에게서 술기운과 더불어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느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나일론 소재의 천 가방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그러곤 한 대 남은 담배를 집어 불을 붙인 뒤 한숨 쉬듯 작게 중얼거렸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찬성은 예반을 데리고 혼자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할까 말까 망설였다.

—내일 일요일인데 술 마시면 어떻게 해? 교회 안 가?

—어.

—왜?

—그냥 안 가.

—술 누구랑 마셨어?

—원로 목사님이랑.

찬성은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할머니에게 수차례 들어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도운 사람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을 때 소송을 알아봐준 이도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었다. 인지대니 송달료니 하는 어려운 말 앞에

서 전전긍긍하던 할머니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도 목사님이라고 했다. 비록 보험료 청구 소송은 기각됐지만 “그래도 그만큼 싸워볼 수 있었던 건 다 목사님 덕분”이라고 할머니는 누누이 말했다. 찬성은 할머니가 하는 얘길 반도 못 알아들었다.

—이제 목사님이 할머니 보기 싫대.

—그게 뭐 소리야?

—무슨 소리긴. 아무 소리도 아니지. 아, 그리고 이거.

할머니가 말을 돌리며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다.

—너 전부터 갖고 싶다고 했지?

—뭐야?

—휴게소 소장이 핸드폰 바꿨다고 주더라. 액정이 좀 깨졌는데 통화는 되는 거라고. 생각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길래 우리 강아지 주려고 챙겨왔지. 뭘 심인가 칩인가 그것만 넣으면 된다던데?

찬성이 눈을 반짝이며 구형 스마트폰을 받아들었다. 할머니 말대로 왼쪽 모서리에 거미줄 모양의 작은 실금이 갔지만 그만하면 괜찮았다.

—밥통에 밥 남았지?

찬성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다.

—응.

—그럼 할머니 먼저 잘 테니 조금만 놀다 자. 백구 밥그릇에서 언내 나던데 좀 씻어놓고.

할머니가 빈 담뱃갑에 침을 뱉은 뒤 담배를 비벼 켜다. 그러곤 비척비척 킁킁한 안방으로 들어갔다.

찬성은 작은방에 누워 전원도 들어오지 않은 스마트폰을 한참 만지작거렸다. 그러곤 쉬는 시간마다 휴대전화 게임에 열중하던 반 아이들을 떠올렸다. 사각 모니터 안에서 기계인지 생물인지 모를 작은 것들이 바글대며 부서지는 모습을 친구들 어깨너머로 한참 훑쳐보곤 했는데, 찬성은 그 세계가 늘 궁금했다. 친구들이 서로 문자로만 대화하거나 찬성이 용기 내 말을 건네도 액정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꾸할 때 특히 그랬다. 찬성은 친구들 사이에 커뮤니티가 작동하는 원리와 어휘로부터 소외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그게 생긴 거였다. 아직 통신사와 계약하거나 번호를 튼 건 아니지만 기기가 있으니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찬성이 문득 고요함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봤다. 온종일 꾸꾸대며 뒹다리를 활던 에반이 찬성 옆에 곧히 잠들어 있었다. 찬성의 얼굴에 얹은 그늘이 깔렸다. 동물병원의 사는 에반이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노견이라 ‘수술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찬성은 그 쉬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몇 차례 눈을 깜빡였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사가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답했다.

—마지막 방법으로…… 드물게 안락사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

—그게 뭔데요?

—아픈 동물 친구를 곤히 재운 뒤 심장 멎는 주사를 뇌주는 거야. 편안하라고.

의사는 “그리고 나서 후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으니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일단 에반에게 잘해주라고, 살아 버티는 동안 무척 고통스러울 테니 옆에서 잘 다독여주라고 했다. 그렇지만 찬성은 어떻게 해야 잘해주는 건지, 에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었다. 때마침 건넌방에서 할머니가 한숨 토하듯 “아이고, 죽어야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 죽어야 근심이 없지. 하나님 나 좀 조용히 데리고 가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찬성이 몸을 돌려 에반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서로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네가 네 얼굴을 본 시간보다 내가 네 얼굴을 본 시간이 길어…… 알고 있니?’

에반의 젖은 속눈썹이 미세하게 파들거렸다. 찬성이 에반의 입매, 수염, 콧방울, 눈썹 하나하나를 공들여 바라봤다. 그러자 그 위로 살아, 무척, 버티는, 고통 같은 말들이 어지럽게 포개졌다.

—있잖아, 에반. 나는 늘 궁금했어. 죽는 게 나를 정도로 아픈 건 도대체 얼마나 아픈 걸까?

—……

—에반, 많이 아프니? 내가 잘 몰라서 미안해.

—……

—있잖아, 에반. 만약에 못 참겠으면…… 나중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면 형한테 꼭 말해. 알았지?

에반이 꿈 소리를 냈다. 찬성은 몸을 돌려 바로 누운 뒤 어둠 속 빈 벽을 한참 바라봤다.

\*

찬성은 복도식 아파트의 각 현관에 A4 크기의 종이를 붙였다. 사십 장 단위로 소분해 모서리마다 미리 유리 테이프를 붙여둔 거였다. ‘고등부 국어 과외’ ‘과외보다 막강한 1대3 시스템, 소수 정예 그룹’ ‘내신 대비 특별 교재, 기말 성적표가 확 바뀝니다’. 그 밖에 피아노와 태권도 학원을 비롯해 미용실과 헬스장, 치킨, 피자 배달업체 광고도 많았다.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면접 때 찬성은 제 나이를 조금 올렸다. 다행히 학생증을 보자는 데는 없었다. 키가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한 우편함은 까치발을 하거나 제자리 뛰기로 해결했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필요한 신축 아파트는 되도록 피했지만 가끔은 모른 척 입주민 뒤를 따라 들어갔다. 옛된 얼굴에 책가방을 멘 찬성을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래

도 남의 집 대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중 누군가 불쑥 문을 열고 나오면 가슴이 쿵쥔거렸다.

할당량은 생각만큼 빨리 줄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와 원룸도 많고 사람들은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무심하거나 신경질적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찬성은 자기가 전단지 배포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는 걸 깨달았다. 살면서 이렇게 몸 쓰는 일로 무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첫날부터 다리에 알이 배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 자체가 곤욕이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찬성은 주문처럼 “한 장에 이십원, 천 장 돌리면 이만원……”이란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면 조금 더 버텨볼 힘이 났다. 며칠간 휴게소에도 들르지 않고 초저녁이면 기절하듯 자는 찬성을 할머니는 별로 수상쩍어하지 않았다. 그저 딱 한 번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땀나?” 묻고 말았을 뿐이다.

작업은 혼자 할 때도 있고 여럿이 조를 짜 움직일 때도 많았다. 한번은 같은 조에서 일하는 중학생 형이 아파트 계단에 앉아 파란색 이온음료를 들이켜며 물었다.

—야, 너 이거 왜 하나?

찬성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을 돌렸다.

—형은요?

—나야 뭐 그냥 담뱃값 벌려고 하는 거고.

—네에……

—넌? 초당이 돈을 얻다 쓰게?

찬성이 주저하다 솔직하게 답했다.

—누가…… 좀 아파서요.

—아……

중학생이 새삼 선량한 어조로 물었다.

—근데 이걸로 돼?

찬성이 눈을 내리깔며 침울하게 답했다.

—우리 개는 작아서 십만원쯤 든대요.

—어? 뭐? 개?

중학생은 잠시 혼란스러워하다 세상 물정 밝은 어른인 척 “요즘은 동물 병원비도 줄라 비싸다”며 불평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개 안락사비가 그 정도 든다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중학생이 무언가 곰곰 생각하다 찬성에게 대뜸 핀잔을 줬다.

—뭘 소리야. 이 새끼 완전 또라이네.

정해진 구역을 다 돌면 찬성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종종 숨을 골랐다. 유리 테이프와 가위, 전단지 및 수건과 물병이 든 책가방을 멘 채 나무 그늘에 앉아 동네 아이들 노는 걸 구경했다. 삼

삼오오 벤치에 모인 엄마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한담을 나누며, 걱정과 관심, 애정이 담긴 눈으로 자기 자식 바라보는 모습을 관찰했다. ‘아, 엄마들은 아이를 저렇게 보는구나’ ‘저런 눈빛으로 대하는구나’ 흘끔거렸다. 그때마다 찬성은 이상하게 태어나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엄마 대신 에반이 떠올랐다. ‘에반도 이런 데서 산책하면 좋을 텐데’ ‘에반도 저런 간식 주면 흥분할 텐데’ 아쉬워했다. 에반은 요즘 찬성이 다가가도 쳐다보지 않았다. 흐릿한 눈으로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찬성이 밥에 날계란을 풀어주고, 할머니 몰래 참치 통조림을 얹어줘도 고개 돌리는 날이 많았다. ‘요새 내가 자꾸 집을 비워 빠진 걸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최대한 돈을 빨리 모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

목표한 돈을 다 모은 날 찬성은 마루에 엎드려 단순한 산수를 했다. 일주일간 전단지 오천 장 이상을 돌려 십일만사천원을 벌었다. 살면서 처음 만져보는 돈이었다. 찬성은 구체적인 노동의 대가를 만지며 뜻밖에 긍지와 보람을 느꼈다. 애초 목적과 달리 예상치 못한 성취감에 살짝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날, 너무 지겨운 나머지 전단지 사십 장 정도를 남의 집 옥상에 몰래 버리고 왔지만, 그것 빼곤 정말 죄 묻지 않은 돈이었다. 찬성은 만원

짜리 열한 장과 천원짜리 네 장을 가지런히 모아 각을 맞춘 뒤 지갑에 넣었다. 그러곤 안방으로 가 할머니 신분증을 몰래 챙겼다. 안락사 동의서를 작성할 때 어른 신분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다음날 찬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물병원에 갈 차비를 했다. 할머니는 이미 휴게소로 출근하고 없었다. 마당 한쪽에 연결된 수도에 세숫대야를 놓고 찬성은 에반을 씻겼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양쪽 귀를 잘 잡고, 몸에 비누 거품을 묻혀 구석구석 닦았다. 그 목욕이 어떤 목욕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에반은 어린 찬성 손에 순순히 몸을 맡겼다.

—시원해? 에반?

혈관이 비쳐 살짝 분홍빛이 도는 에반 귀를 조심스레 문지르며 찬성이 물었다.

—나는 너 이런 데도 닦아줘야 하는지 잘 몰랐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좀 혼났어. 그동안 많이 답답했지?

찬성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찬성이 차분한 얼굴로 검은색 반팔 셔츠의 단추를 잠갔다. 그러곤 지갑 속 현금을 한번 더 확인하고 마루에 걸터앉아 운동화를 신었다. 가는 길에 일진 형들이

라도 만나면 어쩌나 괜한 걱정이 들었다. 찬성이 목욕 후 털이 부풀어 보송보송해진 에반을 사랑스럽게 바라봤다. 그러곤 에반의 목덜미를 한 번 쓰다듬은 뒤 광에서 손수레를 꺼냈다. 오래전 할머니가 줄음 컴퓨터에서 사용한 아이스박스 캐리어였다.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은 걸 고무호스로 씻어야 물을 뿌려 씻어내고, 뚜껑을 분리해 떼어낸 뒤 안에 수건을 깔았다. 그러곤 거기 얼음 대신 에반을 넣었다. 에반 옆에 작은 물그릇과 물통을 넣는 일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기분이 무척 이상했지만, 마지막이라도 도울 수 있어 다행이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을 치른다는 사실에, 그리고 모든 걸 오로지 혼자 준비했다는 생각에 찬성은 경건한 긴장감을 느꼈다.

참사랑동물병원은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이 밀집한 상가 건물 일층에 있었다. 산뜻한 크림색 외벽에 통유리가 시원하게 달린 신축 병원이었다. 상호가 박힌 노란 간판엔 검정색 개 발바닥 도장이 찍혀 있어 전체적으로 다감한 인상을 풍겼다. 유리벽에 붙은 '살인 진드기 집중 예방 기간'이라든가 '강아지를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보며 찬성은 웬지 모를 안정과 신뢰를 느꼈다.

—다 왔어, 에반.

병원에 들어서기 전 찬성이 뒤를 돌아봤다. 허리 숙여 에반과 눈을 맞추고 싶었지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꼭 참았다. 한 손에

손수레 손잡이를 잡은 찬성이 반대쪽 어깨에 힘을 실어 병원 유리문을 밀었다. 순간 어떤 힘이 찬성을 바깥으로 확 밀어냈다.

—어?

현관 위 금속 종이 쟁그랑 소리를 냈지만 유리문은 꿈쩍하지 않았다. 찬성이 얼떨떨한 얼굴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 때서야 유리문에 붙은 공지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중喪中. 주말까지 쉽니다.’

찬성은 상중이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죽음과 관련된 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찬성은 묘한 안도를 느꼈다.

찬성은 상가 주위를 배회하다 인근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갔다. 전에 전단지를 돌리며 몇 번 와본 곳이었다. 찬성은 등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아침부터 온종일 긴장한 탓에 피로가 밀려왔다. 아이스박스 속 에반이 잠에서 깨 고개를 들었다. 그러곤 자신을 걱정스레 내려다보고 있는 찬성의 얼굴을 흘깃했다. 몇몇 사내아이들이 왁자지껄 찬성 앞을 지나갔다. 서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저희끼리 뭐라 참견하고 장난치며 웃어댔다. 찬성이 위축된 얼굴로 그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러곤 자신의 불룩한 바지 주머니를 한 번 만진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가는 길, 찬성은 버스 정류소 근처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지나쳤다. 찬성은 버스를 기다리다 진열장 안에 전시된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경했다. 반짝반짝 검은 보석처럼 빛나는 매끈한 기기 위로 찬성의 얼빠진 얼굴이 비쳤다. 찬성은 그것들이 진심으로 아름답다 느꼈다.

—이것 봐, 에반. 멋지다.

찬성이 진열장에서 시선을 돌려 아이스박스 속 에반을 바라봤다. 에반은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아 그 안에 자신의 머리를 묻고 죽은듯 잠들어 있었다. 찬성은 에반을 한 번 쓰다듬은 뒤 바지 주머니에서 구형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러곤 모서리에 살짝 금이 간 액정에 자기 얼굴을 비춰 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그리고 보니 돈이 남네.

에반을 위해 쓸 돈을 빼고도 만사천원이 남는다는 사실에 찬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집에 가는 버스가 도착했지만 찬성은 버스에 오르는 대신 휴대전화 대리점 유리문을 열어젖혔다.

처음엔 그냥 유심칩 가격이나 물어볼 생각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직원 앞에 앉게 되었고, 그가 내민 서류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넣었고, 할머니 신분증을 건네고 말했다. 찬성은 자신의 구형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넣는 직원을 쳐다보다 대리점 유리문 앞에 세워둔 손수레를 돌아보았다. 아이스박스 안에 잠들어 있을 에반

은 보이지 않았지만 에반이 거기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유심칩 값 만원에 충전기 오천원. 원래 개통비 삼만원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니까 무료로 해줄게.

찬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며 지갑에서 만오천원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다. 에반 병원비에서 천원을 허는 게 조금 찝찝했지만 동물병원이 문을 닫는 기간 동안 용돈을 아끼면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버스 정류소 앞에서 찬성은 휴대전화 버튼을 수없이 눌러보았다. 실금 간 액정 위로 환한 빛이 들어오자 더이상 자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았다. 찬성은 휴대전화 카메라 단추를 눌러 발밑에 잠들어 있는 에반의 사진을 처음으로 찍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찬성의 등뒤로 냉장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갔다.

에반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조용히 잠만 잤다. 여느 때처럼 보채거나 끄끙대지 않고 자신의 다리를 핏지도 않았다. 찬성은 하루종일 휴대전화를 만지다 충전하는 동안에만 가끔 에반을 살폈다.

—그래, 착하다, 우리 에반.

찬성은 잠든 에반의 등을 쓰다듬은 뒤 휴대전화를 다시 손에 쥐고 갖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며 시간을 보냈다.

—전화 요금 많이 나오면 다 네 용돈에서 깔 테니까 알아서 해. 할머니가 었포를 놓아도 소용없었다. 그날 밤 찬성은 이부자리



에 누워 오래전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휴대전화 불빛으로 개 그림자를 만들었다.

—에반, 이것 봐. 내가 네 친구들을 불러왔어.

찬성이 소리쳤지만 에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에반, 이거 보라니까. 내가 아빠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진짜 개야, 진짜 개. 네 친구들이라니까.

에반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틀 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찬성은 휴게소에 들렀다. 여름 휴가 기간과 주말 연휴가 겹쳐 휴게소 안은 주차 공간이 없을 만큼 사람들로 붐볐다. 할머니는 지친 얼굴로 잔치국수가 담긴 쟁반을 들고 찬성에게 다가왔다.

—점심 다른 거 사먹는다고 돈으로 달라 하더니.

—아, 그거. 이제 됐어, 할머니.

—되다니, 뭐가?

—어제 받은 걸로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뭐가 해결됐냐고?

—있어, 그런 게. 얼른 국수나 줘.

찬성이 호로록 국수를 삼키며 주방 안쪽에서 설거지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가 허리를 굽혔다 펼 때마다 허리춤 사이로 찬성이 전날 밤 붙여준 하얀 파스가 보였다 사라졌다.

찬성은 식기 반납함에 쟁반을 갖다놓고 주유소 옆 등나무 벤치로가 스마트폰을 갖고 놀았다. 자신이 스마트폰 만지는 걸 많은 이들이 봐주길 바랐지만 사람들은 찬성을 신경쓰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고, 금연 표지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음료수를 든 채 상대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다들 자기 일에 몰두했다. 주말 인파에 섞여 찬성은 스마트폰으로 <터닝메카드>를 보고 또 봤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지난 사흘 동안 누군가와 통화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찬성이 아는 번호도, 찬성 번호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교무실에 전화 걸어 반 친구들 연락처를 물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선생님과 통화해야 한다는 게 내키지 않았다.

‘아빠가 살아 계셨으면 아빠한테 걸었을 텐데.’

오랜 궁리 끝에 찬성이 지갑에서 동물병원 명함을 꺼내들었다. 상중이라 주말까지 쉰다는 말이 생각났지만 찬성은 괜히 한번 병원 전화번호를 눌러보았다.

‘어쩌면 문을 열었을지도 몰라. 누가 받으면 뭐라고 하지?’

휴대전화 너머로 익숙한 연결음이 들렸다. 찬성은 잘못된 것도 없는데 가슴이 뛰었다. 몇 차례 긴 연결음이 이어졌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은 없었다. 찬성은 동물병원 쪽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이상한 안도를 느꼈다. 찬성이 지갑 안에 명함을 넣으며 남은 돈을 세어보았다. 십만삼천원. 에반을 병원에 데려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액수였다. 오늘날 지나면, 그러면

꼭…… 다짐하며 일어서는데 찬성 무릎 위의 휴대전화가 아스팔트 보도 위로 툭 떨어졌다. 찬성이 창백해진 얼굴로 황급히 휴대전화를 주워 들었다. 그러곤 실금 간 왼쪽 모서리부터 확인했다. 찬성이 거미줄 모양 실금에 손가락을 대고 천천히 문질렀다. 아주 고운 유리 가루 입자가 손끝에 묻어났다. 찬성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집으로 가는 길, 찬성은 한 손을 길게 뻗어 휴대전화를 좌우로 틀며 햇빛에 비춰 봤다. 검은 액정 표면에 닿은 빛이 물에 뜬 기름처럼 매끈하게 일렁였다. 더불어 찬성의 가슴에도 작은 만족감이 일었다. 액정에 보호필름을 붙이니 웬지 기계도 새것처럼 보이고, 모서리 쪽 상처도 눈에 덜 띄는 것 같았다. 스스로에게 조금 실망스런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명했다. 찬성은 ‘구경이나 해볼 마음’으로 휴게소 전자용품 매장에 들렀다. 액세서리 용품 진열대 앞에 한참 머물렀다. 그러곤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한 보호필름을 만지며 자기도 모르게 “사흘……” 하고 중얼댔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는…… 에반이 기다려주지 않을까 하고, 지금껏 잘 견뎌준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흘만 참아주면 안 될까. 당장 가진 돈과 앞으로 모을 돈을 계산하는 사이 찬성은 어느새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갑안의 돈이 어느새 구만오천원으로 줄어 있었다.

에반이 구슬피 울기 시작한 건 그날 밤이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상했다. 에반은 하늘을 보며 늑대처럼 긴 울음을 토해냈다. 자다 깜짝 놀란 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에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왜 그래, 에반? 무슨 일이야?

에반이 저항하며 방바닥에 머리를 짓이겼다. 자세히 보니 눈 주위에 눈곱이 덕지덕지 끼고 입에서도 심한 악취가 났다. 순간 찬성이 입과 코를 손으로 틀어막으며 고개를 돌렸다.

—아유, 저놈의 개새끼!

안방에서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왜 자꾸 재수없게 울어? 아유, 소름 끼쳐. 당장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

할머니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찬성이 에반 대신 목소리를 낮췄다.

—에반, 미안해. 우리 사흘만 참자. 딱 사흘만. 그때는 형이 꼭…… 착하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

이틀이 지났다. 찬성은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다. 가슴츠레

눈을 떠보니 에반이 자신의 뺨을 핥고 있었다. 두 발을 찬성의 가슴팍에 올리고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는 양 찬성 얼굴에 자기 머리를 비볐다. 에반이 꼬리를 흔들고 배를 보일 때와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찬성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 했다. 요즘 계속 잠만 자더니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난 걸까. 혹시 기적적으로 상태가 조금 나아진 걸까. 이렇게 아주 조금씩 좋아지다보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가슴속의 부질없는 희망이 컵에 담긴 물마냥 출렁였다. 에반은 더이상 움직일 힘이 없는지 찬성 옆구리에 머리를 깊숙이 파묻었다. 찬성이 어둠 속에서 잠 묻은 말투로 “그래, 그래” 하고 속삭였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찬성은 서둘러 시내에 갔다. 오늘 아예 직접 병원에 들러 안락사 동의서를 쓰고 예약까지 하고 올 생각이었다. 그러면 더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돈을 헐어 쓰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동물병원에 도착하기 전, 찬성은 대형 문구점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다. 알록달록 여러 종류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걸린 진열대에서 <터닝메카드> 캐릭터가 그려진 상품을 발견하고서였다. 무심코 가격을 살펴보니 삼만사천원이나 했다. 순간 찬성의 머릿속에 전에 없던 의심이 피어났다. 어쩌면 안락사에 대해 자신이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에반의 죽음을 거드는 것보다 에반이 살아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 둘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찬성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어느새 찬성 손에는 육만칠천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모든 게 합당하고 필요한 과정처럼 여겨졌는데 이상했다. 찬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느라 유난히 길게 늘어선 듯한 논둑길을 휘적휘적 혼자 걸었다. 수중에 남은 돈이 구만 얼마이거나 십일만 얼마였을 때와 달리 육만칠천원은 십만원으로부터 너무 멀어 보였다. 다시 십만원을 채우려면 전단지 이천 장을 돌려야 했다. 그런데 이천 장이라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찬성은 웬지 집으로 곧장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휴게소에 들렀다. 그러곤 등나무 벤치에 앉아 새로 산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웠다. 찬성은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곤 휴게소 식품 코너에 들러 에반에게 줄 핫바를 샀다.

‘하나 더 사서 나도 먹을까?’

기름 냄새를 맡으니 허기가 밀려왔지만 참았다. 찬성은 본능적으로 이런 때 작은 금욕과 희생을 감내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리란 걸 알았다. 찬성은 핫바가 든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터덜터덜 사십 분을 걸어 집에 왔다. 모든 불이 꺼진 탓에 집안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찬성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에반! 형이 간식 사왔어. 이리 와봐. 네가 좋아하는 핫바야.

찬성이 신을 벗고 마루에 올랐다.

—에반! 이것 좀 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도 엄청 먹고 싶었는데 너 주려고 꼭 참았어.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

에반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찬성이 작은방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데 거기 에반이 없었다.

—에반!

찬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집 주위가 새삼 섬뜩할 정도로 어둡고  
고요했다. 찬성은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온 세계에 위화감을 느꼈다.

—에반! 너 어디 있니?

습기 찬 저녁 들판 위로 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앞도 잘 안 보일 텐데. 다리도 아픈 녀석이 어디로 간 걸까?’

에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목줄이라도 묶어놓을걸. 에반 몸이 약해졌다고 너무 방심했나 싶었다.

‘떨리는 못 갔을 거야.’

찬성이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켜 채 한 발 한 발 수색 범위를 넓혔다. 에반은 작은 개라 발뺌을 잘 살피야 했다.

—에반! 장난치지 마, 응?

논바닥에 주저앉아 당장 울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찬성이 걸음

을 재촉했다. 일단 에반을 찾는 게 먼저였다.

찬성이 멀리 볼 켜진 고속도로 휴게소를 바라봤다. 자신도 왜 그곳까지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 그랬는지 몰랐다. 아니면 덜컥 겁이 나 할머니가 보고 싶었는지도. 찬성이 숨을 고르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 애썼다. 만일 에반이 혼자 힘으로 어딘가 갔다면 전에 한 번이라도 가본 데일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곳은 찬성도 아는 곳일 확률이 높았다. 찬성은 에반이 지금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 찬성은 일단 분식 코너에 들러 할머니에게 혹시 에반이 여기 오지 않았느냐고 물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유소 앞을 지날 즈음 문득 불길한 느낌이 휩싸이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얼굴에 피가 몰리며 호흡이 가빠졌다. 그러니까 거기 주유소 쓰레기통 옆에 눈에 익은 자루 하나가 보여서였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자루 아래가 블록했고 입구는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찬성이 방망이질 치는 기슭을 안고 그 앞을 못 본 척 지나갔다. 자루 아래로 선홍색 피가 천천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찬성은 전에 비슷한 걸 본 적 있었다. 고속도로 갓길에 쓰러진 동료를 웬 들개 무리가 지키고 선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운전석에서 전조등을 몇

번 깜빡여도 죽은 동료를 에워싼 채 이쪽을 쏘아보던 들개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지만 우리 개는 유기견이 아니니까……’

찬성이 식당 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런데 그때 몇몇 형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쪽 가슴에 주유소 로고가 박힌 조끼를 입은 형들이었다.

—아이 씨, 아니라니까 그러네.

—에이, 설마?

—아이, 진짜라니까. 그 개가 일부러 뛰어드는 것 같았다니까.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찬성은 꽤 오랫동안 그 자루 앞에 서 있었다. 몇 번 ‘노끈을 풀 어볼까?’라는 충동이 일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루 아래로 방금 전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새어나왔다. 만지면 아직 따뜻할 것 같은 피였다. 이윽고 찬성이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자루에 든 게 뭔지 끝내 확인하지 않고, 그때까지 오른손에 꼭 쥐고 있던 휴대 전화를 든 채 자리를 떴다.

주위는 더 어두워졌다. 찬성이 뻗뻗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고속도로 옆 비포장길을 걸어나갔다. 몇몇 차들이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며 찬성 옆을 확확 지나갔다. 찬성이 고개 숙여 제 손바닥을 내

려다봤다.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너무 오래 사용한 탓에 기기에 서 열이 났다. 손바닥에 고인 땀을 보니 문득 에반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손바닥 위 반짝이던 얼음과 부드러운 차가운 듯 뜨뜻미지근하며 간질거리던 무엇인가가. 그렇지만 이제 다시는 만질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을 옥죄었다. 하지만 당장 그것의 이름을 무어라 불러야 할지 몰라 찬성은 어둠 속 갓길을 마냥 걸었다. 대형 화물 트럭 몇 대가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며 찬성 옆을 사납게 지나갔다. 머릿속에 난데없이 ‘용서’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찬성이 선 데가 길이 아닌 살얼음판이라도 되는 양 어디선가 짹짹 금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